



안준모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중국과의 국교수교 이래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북경국제도서전에 참가하고 있다. 매회 참가규모를 늘려가고 있는데 1998년 처음 참가한 도서전에서는 3개 부스를 운영,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2000년 7개 부스, 2002년 21개 부스를 운영했고 올해는 32개 부스를 국가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협에서는 지금까지의 참가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 국내 저작권 및 출판수출의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2003년 북경국제도서전은 세계 50여 개 국가의 단체와 출판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며 잠재력 높은 중국 출판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전 주최측도 이 같은 열기에 화답, 격년으로 개최해 오던 도서전을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하고, 전시장도 북경국제전시장에서 보다 큰 장소인 북경전람관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2003년 북경국제도서전은 최초 5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9월로 순연되어 개최된다.

이 글을 통해 중국 출판시장의 현황, 특징 및 경향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며 이번 북경국제도서전을 준비하는 참가자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중국 출판시장의 현황

출판 및 도서관매는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14만 종(신간 9만여 종, 개정판 4만여 종)을 출간했으며, 출간된 전체 도서의 판매총액은 13조 4,700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의 출판사는 모두 국영 공인출판사로 565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도서관매와 관련하여 도서관매 장소의 수는 7만5,235개소, 이중 국영 신화서점 계열 1만3,283개소, 개인소유 3만7,778개소, 농촌지역 2만4,174개소가 있다.

중국의 저작권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2,292종), 영국(860종), 독일(389종) 순이며 일본, 대만, 홍콩, 프랑스에 이어 한국은 저작권 주요 수입 국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 수입계약은 6,461종, 저작권 수출은 418종이다.

2. 중국 출판시장의 특징 및 경향

공식적으로 개인소유의 출판사는 존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문화사업단체나 에이전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도서정가는 인쇄되어 있지만 정찰제는 실시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할인이 가능하다.

국영 출판사에서 출간된 도서의 60퍼센트는 중국의 제1판매망인 국영 신화서점의 체인을 통하여 판매되며, 출판사들은 신화서점이 주문하는 양에 따라 도서를 출간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도 조금씩 변해 점점 더 많은 출판사들이 소위 제2판매망인 개인소유의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출판물은 외국어서점 체인이나 국영 수출입회사의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중국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후, 향후 개인소유 출판사들도 출판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1992년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베른조약에 서명했지만 불법복제는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베스트셀러의 경우 많은 해적판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말하며 불법복제 문제의 개선을 약속했다.

중국에서 북클럽은 자체적으로 출판을 할 수 없으며, 대량으로 도서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할인판매를 하는 소매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제일 큰 북클럽은 1997년 상하이에 설립된 '베텔스만 북클럽'이다. 현재 15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급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3. 중국 아동도서
출판시장 개관

아동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출판사는 31개사이지만 1998년 이후 500개사 이상의 출판사가 아동도서를 동시 출판하고 있다. 중국의 아동도서시장은 경제발전과 교육제도 개혁으로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정책' 시행은 중국의 부모들로부터 하나뿐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는 데 들이는 돈을 아깝지 않게 했다.

중국의 아동도서 판매성장률은 141.3퍼센트, 시장점유율은 8퍼센트(학습교재 제외)를 보이고 있다. 유통되는 전체 종수는 약 2만 8천 종이며 그 중 문학 42퍼센트, 논픽션 20퍼센트, 그림책 및 음악책 10퍼센트, 영어교재 7.5퍼센트를 차지한다. 국제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발을 맞추어 조기교육을 가능케 하는 아동도서시장은 탄력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4. 북경국제도서전
참가를 위한 제언

인터넷환경이 발달한 오늘, 오프라인 도서전 참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도서전은 저작권 거래를 위해 상대와 대면을 갖는 자리이며 신뢰를 쌓게 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도서전을 통해 신간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경영의 안목을 넓힐 수도 있다.

도서전에 참가하는 참가사는 한두 번 참가로 많은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최소 3년 정도의 꾸준한 참가를 통해 점진적인 저작권 거래의 확대를 꾀하고, 해외출판인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믿을 만한 거래처임을 보여줘야 한다.

2002년 북경국제도서전에서 사전정보의 부재가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만큼, 참가 이전부터 저작권 상담과 거래를 위한 최적의 타겟을 찾아 사전연락에 충실해야 한다. 저작권 계약을 위해서는 자사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도서전을 참가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 역시 필요하다. 중국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도서정보를 수집하고 선인세 및 CD값 등에 대한 정보와 가격동향 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선인세는 1천~2천 달러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도서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일반도서는 1,500~2,500원, 아동도서는 1,000원~1,500원 가량이다. 초판 인쇄의 경우도 대부분 5천 부, 8천 부, 1만 부 수준으로 수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과의 저작권 거래를 성사시켰더라도 이후 판매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으므로, 되도록 계약 성립 시에 선인세를 많이 받는 것이 좋다. 판형과 가격 등 중국 출판물은 한국과 다른 사양이 많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형이 달라 CD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CD가 없어 필름을 스캔해야 할 때에는 아트워크 대가 지불 차원에서 스캔비용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이전까지 미주와 유럽 쪽의 책을 구입해 왔으나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도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WTO가입으로 중국 출판시장도 5년 내 개방이 된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요소는 아직 많은 상태이다.

북경국제도서전을 준비하는 참가사에게 이 글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9월에 개최되는 북경국제도서전을 통해 한국 출판계가 중국에서 더 큰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